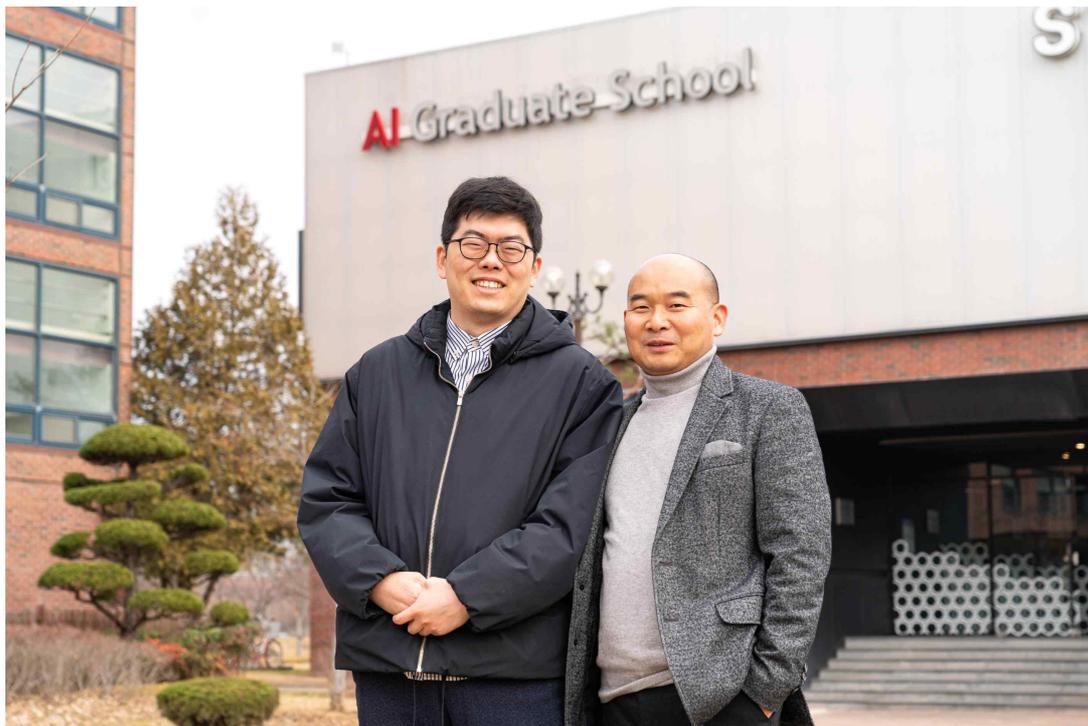


“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AI 연구자가 되겠습니다!”

지스트 AI대학원 제1호 박사 배출

- 안창욱 교수 연구실 김만제 박사, “로봇·에너지 분야 AI 연구 매진하고파”
- 17일(금)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대면 학위수여식 개최...총 277명 학위 수여



▲ 지난 2019년 문을 연 지스트 AI대학원이 「2022학년도 학위수여식」에서 제1호 박사를 배출한다. (왼쪽부터) 김만제 박사와 지도교수인 'AI 작곡'으로 유명한 안창욱 교수

인공지능(AI) 분야의 교육·연구·창업을 하나로 잇는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19년 문을 연 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 김기선) AI대학원이 제1호 박사를 배출한다.

주인공은 'AI 작곡'으로 유명한 안창욱 교수 연구실의 김만제(32) 박사로, 김 박사는 2월 17일(금) 오후 2시 지스트 오룡관 다목적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「2022학년도 학위수여식」에서 AI대학원의 첫 박사학위증을 받는다.

김만제 박사는 학위과정 동안 **딥러닝 AI 개발 및 알고리즘 연구**를 수행하며 6편의 SCI급 논문을 「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」 등 AI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고, 8편의 국제학술대회 논문을 발표하는 등 뛰어난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.

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재학 시절 당시 세종대 재직 중이던 김경중 교수(현재 지스트 융합기술원 교수)를 만나 AI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김 박사는 '스타크래프트 게임 인공지능'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대학생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다.

김 박사는 “안창욱 교수님의 ‘작곡 AI’를 접하고 **AI가 예술 영역에 활용돼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**는 것에 매력을 느꼈다”며 “타 과기원 등 국내 우수 대학 석사과정에도 합격했지만 안창욱 교수님과 함께 연구하고 싶어 지스트에 진학했다”고 말했다.

안창욱 교수 연구실에 합류해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동안에도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플레이하는 AI에 대한 관심을 이어온 김 박사는 지스트에서 개최한 ‘스타크래프트2 AI 글로벌 대전’에 지스트 대학생들과 함께 출전해 미국, 독일,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참가한 AI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.

또한 김 박사는 AI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AI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‘**삼성 AI 포럼**’에 **우수 논문 발표자로 초청돼 포스터 발표를 진행**하는 등 AI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실적을 쌓아왔다.

졸업 후 지스트 AI대학원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할 계획인 김만제 박사는 “지스트 AI대학원의 첫 박사가 되어 영광”이라며 “지스트에서 얻은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향후 AI 분야의 다양한 연구자와 학생들과 함께 **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인공지능 연구**를 수행하고 싶다”고 포부를 밝혔다.

한편, 지스트는 17일(금)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김만제 박사 등 **박사 74명**을 비롯해 석사 112명, 학사 91명 등 **총 277명에게 학위를 수여**할 예정이다.

특히 이번 학위수여식은 **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모든 졸업생과 가족들이 참석하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**될 예정이며,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졸업생과 학부모 등은 유튜브(YouTube)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.

이번에 학위를 받는 **박사 74명**은 재학 기간 동안 **SCI급 학술지에 1인당 평균 약 6편의 논문**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 박사학위자 중 **의생명공학과 김재원 박사**(지도교수 김재관)는 재학 기간 중 **환자의 후각을 이용해 치매를 간편하게 조기 진단**하는 기술을 개발해 치매진단 전문 기업 ‘앤서(N.CER)’를 **창업**했고 ‘근적외선 및 뇌전도 신호를 이용한 치매진단 장치’, ‘후각을 이용한 치매진단 시스템’ 등 **9건의 특허**를 내는 등 도전적인 창업 및 연구 실적을 인정받아 학위수여식에서 ‘**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상**’을 수상한다.

김기선 총장은 "지난 수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이뤄낸 소중한 결실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학위를 받는 277명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한다"면서 "지스트에서 얻은 연구 역량으로 남들과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열정 넘치는 과학기술인이 되어주기 바란다"고 당부했다.

이번 학위수여식으로 지스트는 지난 1993년 설립 이래 **박사 1,780명을 포함해 석사 4,819명, 학사 1,126명 등 총 7,725명**의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배출하게 된다.